

태권도장 활성화 콘텐츠 제작

태권도진흥재단, 'K타이거즈 제로' 홍보대사 위촉... 태권도 발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19일 K타이거즈 제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K타이거즈 제로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이상욱 이사장 등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와 K타이거즈 안창범 대표, K타이거즈제로 나태주, 태미 등 멤버 전원이 참석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K타이거즈 제로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태권도를 홍보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에 동참키로 하는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미스터롯 출연 이후 태권트롯으로 활발한 활동 중인 K타이거즈제로 나태주 홍보대사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장 지원을 위한 노력뿐 만 아니라 태권도의 멋과 힘을 알리고 태권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K타이거즈

제로가 태권도를 대표하는 아이돌 스타로서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장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했다. 한편,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장 내부 방역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을 마친 후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17일 오후 서울과 광주FC의 K리그1(1부리그) 2라운드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앉힌 '리얼 마네킹'들.



태권도진흥재단은 19일 K타이거즈 제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K타이거즈 제로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이상욱 이사장 등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와 K타이거즈 안창범 대표, K타이거즈제로 나태주, 태미 등 멤버 전원이 참석했다.

“리얼돌 논란에 상벌위 여부 검토 중”

프로축구연맹 "본 사안에 적용할 만한 규정 있는지 파악 중"
FC서울 홈구장 관중석에 앉힌 수십개의 '리얼 마네킹'
진짜 사람의 분위기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웠으나
중계방송·사진 등으로 본 팬들 사이에서 주장
서울 구단에 소개해준 연맹 "선수 피규어 제작사로 생각"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서울의 홈구장 관중석에 설치된 '리얼돌' 논란과 관련해 상벌위원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주간 브리핑에서 "상벌위가 서울의 홈 경기장에 등장한 성인용품 '리얼돌' 논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본 사안에 적용할 만한 규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광주FC의 K리그1(1부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벌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시작한 K리그의 빈 관중석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진 가운데 서울은 홈서포터스석에 '리얼 마네킹'이라고 이름 붙인 마네킹 수십 개를 앉혔다. 진짜 사람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세운 의도였지만, 이를 중계방송과 사진으로 지켜본 팬들 사이에선 '리얼돌'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마네킹이 든 응원 피켓에는 리얼돌 업체명과 모델이 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구단은 18일 사과문을 올리며 "성인용품과는 전혀 연관 없는 제품"이라며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담당자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변명 없이 저희의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 구단에 마네킹 업체를 소개해준 연맹에도 불평이 튀었다. 연맹은 "지난 4일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라며 소개를 받았다. 샘플이나 명함은 없었다. 피규어를 만든다고 하길래 선수 피규어를 만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연맹은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구단에 연결만 해줬다"고 설명했다. 경기 당일 감독관이 마네킹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경기 감독관이 광고물이나 현수막 문구 등에 대해선 파악하지만, 관중석에 있는 걸 체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사례처럼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손볼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재발 방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성 숨은 메시지 찾기' 전북현대, 대구FC전 이벤트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오는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FC전에서 중계를 통해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 '숨은 메시지 찾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중계를 보며 경기장에 한 글자씩 배치된 글자의 조합을 찾아 구단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면 된다. 정답을 보낸 팬 11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대구전 선발에 나서는 베스트11의 친필 사인을 담은 백구 사인볼을 선물할 계획이다. 구단은 "무관중 경기로 중계를 통해서만 응원할 수밖에 없는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면서 "팬들로부터 영상 응원 메시지를 받아 대구전에 전광판으로 송출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응원 메시지 영상은 21일까지 구단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단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K리그1 개막전, 1900만명 시청'

중국·마카오에서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고 시작한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을 전 세계 1900만명 이상이 지켜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지난 8~10일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개막전 1라운드 6경기를 중계로 지켜본 전 세계 시청자 수는 155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K리그1 공식 개막전이었던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가 중계된 유튜브브와 트위터 중계 접속자(360만명)를 더하면 총 1914만여명이 K리그1 개막전을 지켜본 것이다. 애초 36개국으로 알려졌던 K리그1의 해외 중계도 포르투갈 방송사 채널가 추가되면서 총 37개국 K리그1 개막전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1라운드 6경기를 기준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과 마카오 등에 K리그1을 중계한 K-Ball과 PPTV의 시청자 수는 580만명에 달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인도권 방송사인 '판코드(Fancode)'에선 520만명의 시청자가 K리그1 개막전을 지켜보 그 뒤를 이었다. 또 러시아권 방송사인 'TV Start'에서도 240만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 주말 열린 K리그1 2라운드의 네이비 중계 동시 접속자 수도 3만4102명으로 전년도 동시점 대비(2만1378명) 큰 폭을 상승했다. K리그2 역시 1만316명으로 지난 시즌 6266명 대비 62.0% 상승했다. 경기 별로는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경기가 최대 동시접속자 수 5만5931명에 누적 동시접속자 수 90만574명으로 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